

“모든 아이는 새싹처럼 저마다의 속도와 방향으로 자랍니다.”

삼성복지재단 ·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 오픈

- 삼성복지재단은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부모, 교사들에게 신뢰도 높은 발달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8.3(월) 오픈
- 2024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발달체크도구, 발달지원 콘텐츠, 전문기관 정보 등 조기발견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 교육·보육·의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고 부모·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플랫폼이자 지속가능한 영유아 발달지원 생태계 허브로 역할 기대

삼성복지재단과 육아정책연구소는 아이의 발달을 일상 속에서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알맞게 연계하여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새싹과단비.org)」를 8월 3일(월)에 오픈한다.

「새싹과단비」는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체크 ▲시기별 발달 안내 ▲발달지원 놀이 ▲아동 거주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를 한 곳에 담은 원스톱 발달지원 통합 플랫폼이다.

최근 발달지연·경계선 아동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5년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2012년 대비 2023년도 전체 수검자 중 '추적검사요망' 아동의 비율은 약 6배(2.1%→12.3%), 후속 정밀검사가 필요한 '심화평가권고' 아동의 비율도 약 3배 이상(0.9%→3.3%)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는 검사 결과 이후 공신력 있는 정보와 적절한 전문기관 및 지원서비스로 연계되기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아동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영유아의 발달문제는 조기선별과 적기개입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검증된 발달 정보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제공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삼성복지재단은 실질적인 발달지원 체계 구축과 발달지원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부모, 교사들이 아이들의 발달을 직접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협력해 2024년부터 약 2년간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구축했다.

「새싹과단비」 플랫폼은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발달체크도구 K-SIED(Korean Screening Index of Early Development)를 무료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아이의 발달상태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부모가 가정에서, 교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밀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까지 원스톱으로 연결해 준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발달체크 → 결과 안내 → 맞춤형 발달지원 콘텐츠 → 아동 거주지역의 전문기관 정보'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구축하였다.

플랫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계, 아동관련 협회/학회 전문가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달지원센터,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의견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플랫폼의 주요 이용자인 부모와 교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부모·교사 모니터링단을 선발하여 사용자 이용흐름, 디자인 및 사용 언어 등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앞으로 (삭제)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지속가능한 공공의 발달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모·교사 모니터링단과 서포터즈들과 함께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고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공공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발달지원 사업들이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재단 총괄 류문형 부사장은 “「새싹과단비」는 장애위험이 있는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의 지원자가 되고자 구축한 플랫폼이다. 앞으로 교육·보육·의료·복지계와 협력하여 플랫폼이 발달지원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은 “최근 발달이 느린 영유아가 증가하면서 부모와 교사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새싹과단비」는 공공기관의 연구 성과를 부모와 교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문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해 부모의 양육을 돕고 교사의 영유아 발달지원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성복지재단은 지난 37년간 영유아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교육·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전국 영유아 현장을 위해 다양한 '보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행동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구축 ▲삼성 유아 마음성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대외 보급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특강 등이 있다.

별첨 1. 플랫폼 이미지 2. 플랫폼 사이트맵 3.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4. K-SIED 소개 5. 협의체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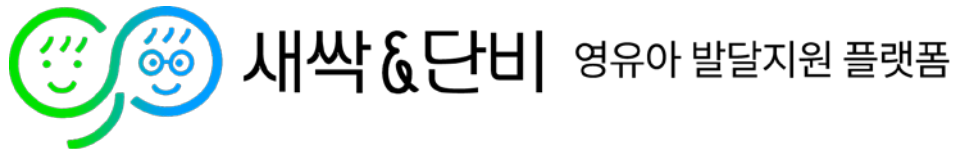
별첨 1

: 김성주 (☎ 02-2014-6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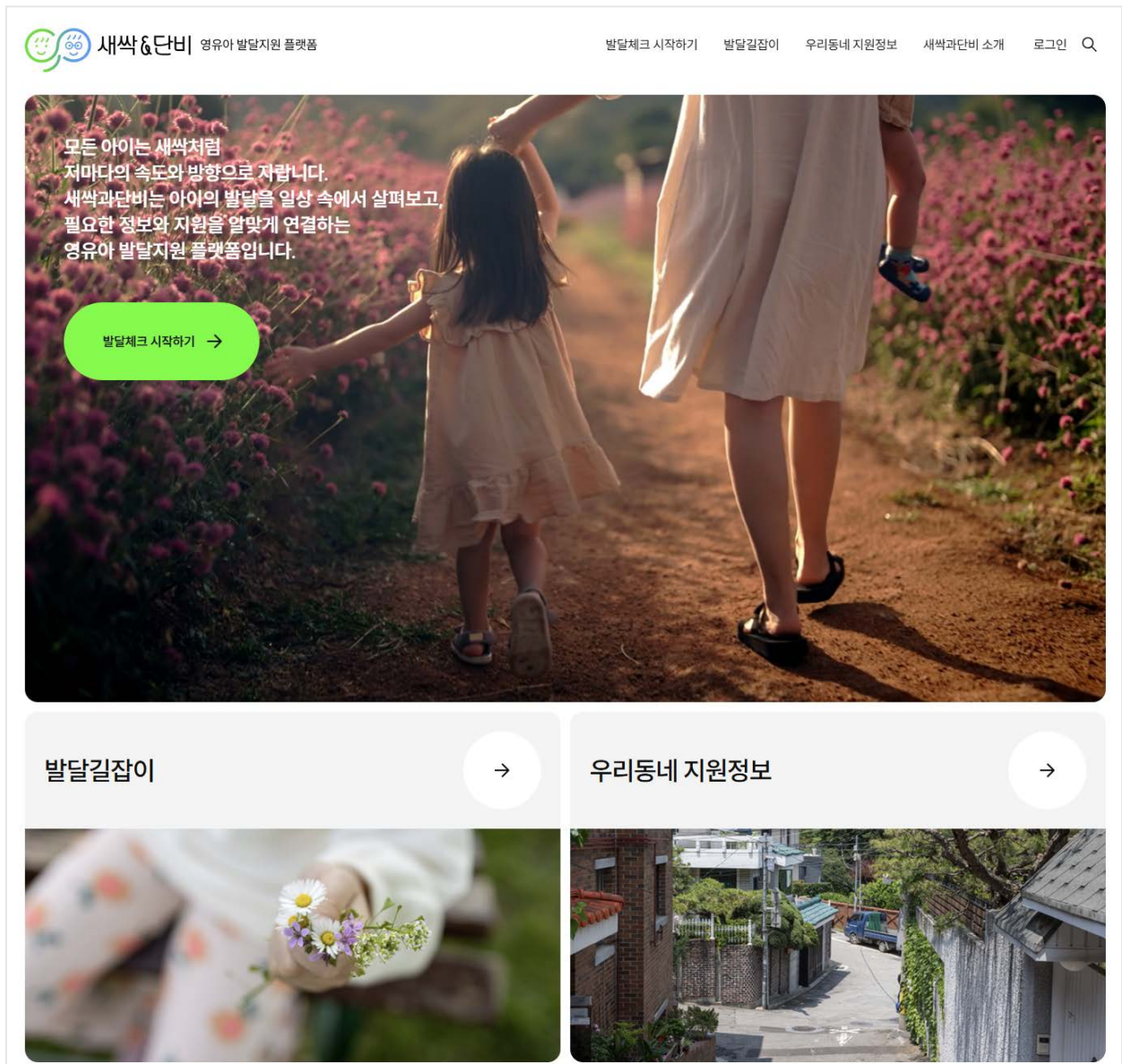
플랫폼 이미지

☐ 플랫폼 URL : www.새싹과단비.org (8월 3일 오픈)

☐ 로고



☐ 메인 화면



□ 주요 페이지 화면

- 영유아 발달체크/결과 리포트

K-SIED 발달체크 | 너랑이

50개 문항 중 15번 진행 중...

처음으로

←

15. 속도를 나타내는 말을 이해한다.
예) “빠르게/천천히 움직여볼까?”라는 말에 따라 움직인다.

아니다

가끔

자주

→

자녀가 실외에서
놀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K-SIED 발달체크
결과 리포트

마이페이지

처음으로



단비(여)

2021.08.03 / 59개월

인지 영역

양호

언어 영역 (수용언어)

관심

언어 영역 (표현언어)

양호

운동 영역 (소근육 운동)

관심

운동 영역 (대근육 운동)

주의

사회 정서 영역

주의

자조 영역

주의

종합 의견

단비는 전반적으로 정상 발달을 보이지만, 일부 영역은 추가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인지, 표현언어 영역은 양호군에 해당하여 정상 발달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수용언어, 소근육 운동 영역은 관심군에 해당하여 추적관찰을 요하고, 대근육 운동, 사회 정서, 자조 영역은 주의군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심화검사를 요합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자라며 작은 차이는 정상 범주일 수 있습니다. 결과 리포트 주요 내용의 서본 발달체크 결과는 영유아 발달을 돕기 위한 자료이며, 영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찰을 시도하고 종합적인 해석을 요합니다. 따라서 본 발달체크 하나의 결과로 영유아의 현재 발달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엄마아빠와 함께놀이

전문기관 찾기

- 발달지원 놀이


새싹&단비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발달체크 시작하기 발달길잡이 우리동네 지원정보 새싹과단비 소개 로그인

엄마아빠와 함께놀이

12개월 ~ 17개월
 기저귀

추천 놀이 목록

- 인지 영역
- 수용언어 영역
- 표현언어 영역
- 소근육 운동 영역
- 대근육 운동 영역
- 사회 정서 영역
- 자조 영역

<수용언어> 기저귀 찾기 놀이

배변과 관련된 어휘(예: 기저귀, 화장실 등)를 알고 기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놀이 및 상호작용 방법

1. "OO이 기저귀 찢은 어디지? 기저귀 찢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여 알육자가 함께 기저귀가 뜯 바구니를 찾으러 가며 아이가 스스로 찢게 격려해 주세요.
2. "이번에는 물티슈가 꼭꼭 숨어있대"라며 아이가 보이는 곳에서 숨기고 아이가 찾을 수 있도록 놀이해 주세요.
3. 기저귀, 팬티, 휴지, 물티슈 등을 배변과 관련된 물건들을 숨기며 찾는 놀이를 통하여 아이가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수용언어 #어휘이해 #12-17개월



이거 봐, 비보 비보 경찰차다

- 아동 거주지역의 전문기관 정보

전문기관 찾기



지원정책 알기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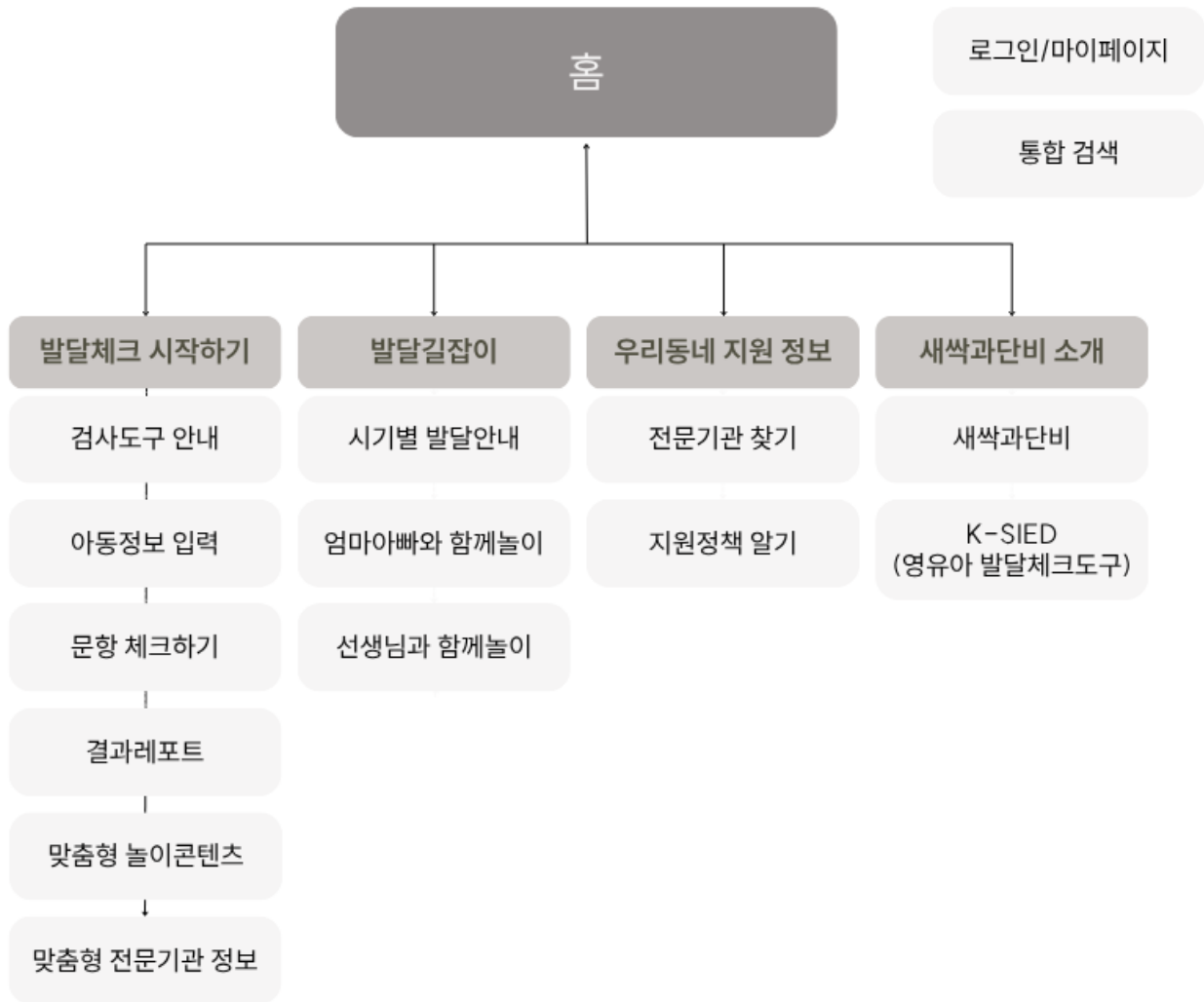
송파구

- 의료 지원 62
- 바우처 지원 19
- 교육 지원 41
- 관련 기관 3
- 저장한 기관 0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플랫폼 사이트맵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 개요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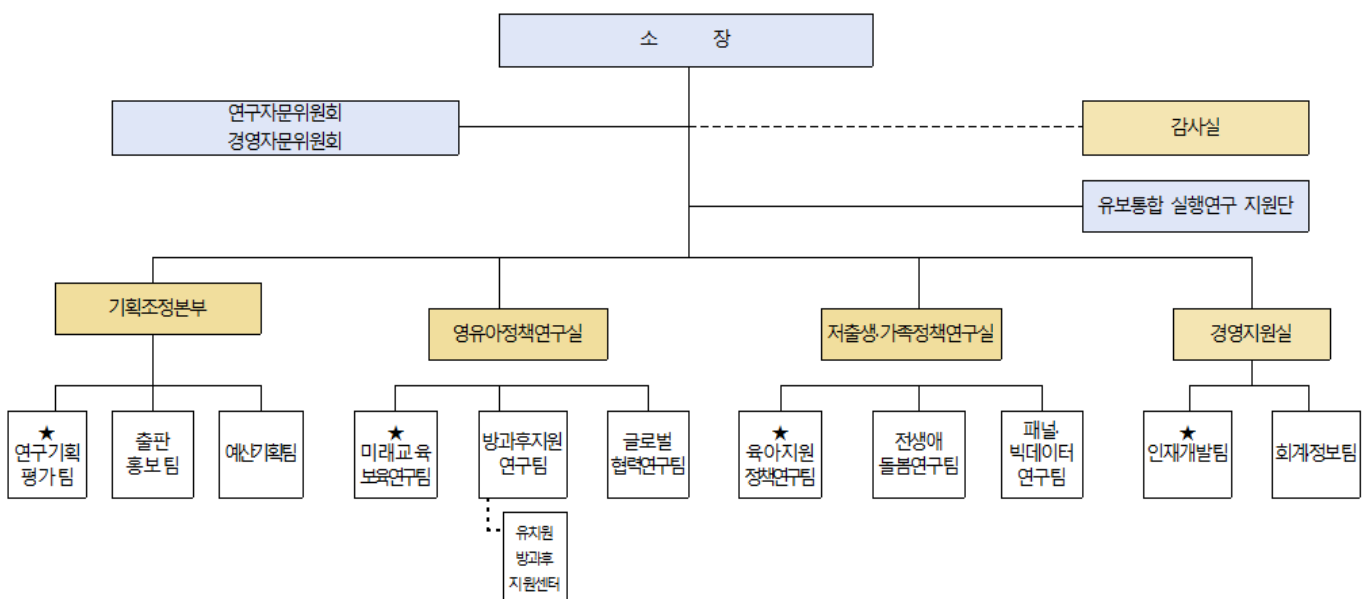
□ 주요 연혁

- '05.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설립
- '05.12월 보육시설 평가인증 업무 위탁
- '06.12월 보육종사자 자격관리업무 위탁
- '09.03월 보육시설안전공제회 업무 위탁
- '09.12월 육아정책연구소로 개칭

□ 주요 업무

- 육아관련 현안 및 정책 방안 연구
- 육아 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육아 지원 인력의 자격제도의 관리 및 교육 훈련
- 육아 정책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 기타 육아 정책 관련 주요 사항 연구

□ 조직현황 : 1본부, 4실, 11팀



영유아 발달체크도구 K-SIED 소개

* Korean Screening Index of Early Development, 케이씨드

□ 목적 및 취지

-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조기에 확인하고,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필요한 발달지원을 연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진단검사'가 아닌 '스크리닝'을 위한 도구로
* 한국아동학회 협력, 2022년~2024년 개발 및 표준화
영유아의 현재 발달상황을 체크하는 '영유아발달체크도구'로 사용

□ 검사 개요

- 대상 연령 : 12개월 ~ 만 5세 영유아
(12~17개월, 18~23개월, 24~29개월, 30~35개월, 3세, 4세, 5세로 구분)
- 검사 유형 : 교사용(K-SIED:T), 부모용(K-SIED:P)
- 문항 개수 : 연령별 40 ~ 60개
- 소요 시간 : 15 ~ 20분 내외
- 검사 영역 : 7개 발달영역에 대한 검사
(인지, 수용/표현언어, 소근육/대근육 운동, 사회정서, 자조)

□ 주요 특징

- 가정/영유아 기관의 일상 속에서 관찰을 기반으로 체크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됨
- 검사결과는 7개 발달영역별로 “주의군/관심군/양호군” 중 해당 범주를 제공함
- 스크리닝 도구로 발달상태를 단정하지 않도록 안내를 명시함

플랫폼 전문가 협의체 명단

No	분 야	기 관	성함 및 직함
1	공공기관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이OO 과장
2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OO 과장
3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OO 교육연구사
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OO 과장
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이OO 사무관
6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김OO 본부장
7		충남유아교육진흥원	양OO 원장
8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김OO 센터장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김OO 팀장
10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이OO 장학관
11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박OO 장학사
12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황OO 교육연구사
13	의료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OO 교수
14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권OO 교수
15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OO 교수
16	학회/협회	한국아동학회	이OO 회장
17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최OO 협회장
18		한국아동행동전문가협회	박OO 협회장